

# 영암군, 체류형 관광도시로 지역 판 바꾼다

여행상품 개발·생태문화 인프라 확충…체험·미식 완성  
우승희 군수 “맞춤형 정책 추진…지역경제 활력에 도움”

영암군이 2026년 체류 관광도시로 지역 관광과 경제의 판을 바꾸는 큰 걸음을 내딛는다.

일시적 여행에서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하고, 다시 찾는 관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7억원 지역사  
권 매출로 효과를 입증한 ‘영암여행 1+  
1’ 확대, 주말마다 새로운 ‘2026 영암왕  
인문화축제’ 개최, 생태·문화예술 관광  
인프라 확충, 체험하는 관광지 콘텐츠  
혁신, 미식으로 완성하는 체류 관광 등  
의 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군은 관광객의 지역 여행을 재방문, 골목상권 소비로 연결하는 소비 연계 관광 인센티브 사업 '영암여행 1+1'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했다.

5개월 시범 운영해 1만4000여명 관광객이 7억원 이상의 지역 소비를 창출했다. 잘 설계된 관광정책이 관광객의 머무름과 소비를 견인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영암군은 올해부터 영암여행 1+1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센티브 지급 구조를 개선해 개인·단체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고, 재방문을 더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구름마를 사거리 빈상가를 리모델링해 관광안내소와 청년점포 기능을 결합한 저점포 조성하고, '전남형 문화형발점 300 프로젝트'와 연계해 중장기 마을관광 활성화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대표적인 관광콘텐츠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에 재선정됐다. 2024~2025년에 이어 기획력과 콘텐츠 경쟁력, 안정 운영 역량을 다시 인정받았다.

영암군은 오는 4월 '2026 영암왕인문  
화축제'를 개최해 지역 관광 재도약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군은 여행객의 체류  
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과 수변 등 생  
태와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읍 공동지구  
에 조성 중인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  
설'은 공정을 75%로 준공을 앞두고 있



다. 네트어드벤처와 물러집 등 산림 레포츠 시설을 갖춰 기차밧길과 연결하고 대표 산림휴양 거점으로 육성한다.

영암트로트아카데미도 교육·기숙 복합시설로 건립 중이다. 기차랜드는 여름

성수기 이전 대대적 시설 정비로 안전성·편의성을 강화한다. 이미 개장한 대동제·도갑제 수변길에 더해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 라운지'를 조성해 생태와 휴식을 결합한 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왕인박사유적지는 전용 이미지(CI) 개발과 굿즈 제작, 스탬프 투어 운영 등 브랜드 관광지로 육성, 지난해 '천산 영암맷집' 유치에 이어 올해 월출산 천황사입구에 장어땀바집 개점 등 미식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관광은 이제 단순히 보고 돌아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경험하며 다시 찾는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2026년을 기점으로 축제 연결, 인프라·공간 재생, 미식 관광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력과 골목상권 매출을 도모하는 등 체계적인 관광도시 영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 해남,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한다

해남종합병원·해남우리종합병원과 업무협약

해남군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던 어르신들이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가 복귀를 지원한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해남종합병원, 해남우리종합병원과 퇴원 환자 재가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문 의료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굳은 환자가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협력 체계는 의료기관 내 전문 복지사가 퇴원 예정 환자의 건강 상태, 경제 여건, 가족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종합 평가



해 군에 의뢰하면 군은 전담 인력을 투입해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가사서비스, 안부 확인, 일상생활 모니터링을 포함한 생활 지원 등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주거 환경 지원 등 2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

## 완도, 탄소흡수원 '블루카본 잠피 숲' 조성

신지면 양천·고금면 봉암 해역에 중간 육성장 마련

완도군은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잘피 중간 육성장 조성에 나섰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팔포 중간 육상  
장 조성 사업은 완도군과 한국수산업자공  
단(FIRA), 아촌계가 협력해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적지 조사를 통해 신지면 양  
천리와 고금면 봉암리 해역이 사업 대상  
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에 잘피 씨앗을 파종 후 약 30cm 정도가 자라면 씨앗을 채취해 더 넓은 해역으로 옮겨 심을 예정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신지면, 고금면 6ha  
해역에 잘피 씨앗 30만개를 파종했다.

잡피는 연안에 숲을 이루며 수산 생물

의 산란·서식장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잘피 이식을 추진하  
고 있으며, 전국 잘피 분포량의 약 60%를  
도 해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  
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잘피 숲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  
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그동안 민간 기업, 공단 등과 합



바다숲 확대에 힘써왔다

2024년에는 호성호  
과 협력해 13억원을  
입, 신지면 동고리  
역에 1.59km<sup>2</sup> 규모  
잘피 숲을 조성했  
며, 한국전력공사와  
무협약을 체결해 윈  
장좌리 해역에 15만주

10월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진  
의 유전적 다양성 연구' 용역

비 18억원을 지원받아 소양호 상정리 해역에 바다 조성할 예정이다.

기자 knk1831@gwangnam.c

